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최재혁 간사 010-4740-9143)

제 목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출근 즈음 응원메시지 공유

날 짜 2015. 2. 1. (총 32 쪽)

보 도 자 료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님의 50여일만의 재 출근에 즈음하여
참여연대의 응원의 마음과 많은 국내외 시민들의 걱정과
응원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박창진 사무장님께 전달합니다.**

1. 대한항공 사태 초기부터 적극 대응했던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 2월 1일 박창진 사무장님이 다시 출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유무형의 불이익이나 부당한 조치를 적극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대응해나갈 계획임을 천명합니다. 커다란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 다시 출근을 하게 된 사무장님께 시민들과 함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2.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도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법정에서까지 증언하였으므로 반드시 그 법적, 사회적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여연대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한진그룹 고위 관계자들과 대한항공 경영진들에게 '당이 해당 사건의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사무장님, 승무원님들, 조종사님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에 크고 작은 그런 부당한 일이 발생한다면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호소와 당부의 말씀을 간곡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3. 대한항공 사태초기-진실이 은폐된 그때, 박창진 사무장님은 용기 있게 시민사회와 언론에 진상을 알리셨고, 이 일은 대한민국에서 돈과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저질러지는 '슈퍼갑질'에 대한 광범위한 성찰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박창진 사무장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실 때마다 더 큰 고통과 불안이 엄습했겠지만, 또 수없이 많은 고민과 불면의 날을 보내셨겠지만, '슈퍼 갑질'이 부당한 짓이고 누구도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또 인간의 존엄성과 일하는 노동자의 자존감에 대한 믿음으로 정말 값진 일을 하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지금 박창진 사무장님을 진심으로 걱정하면서도, 또

다 같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창진 사무장님! 부디, 늘 건강하게 훌륭한 승무원, 사무장님으로 회사를 잘 다니시길 기원드립니다!!

5. 한편, 참여연대에는 국내외에서 박창진 사무장님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모아서 박창진 사무장님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50여일만에 출근에 즈음하여, 특히 국내에 와 있는 외국 유학생과, 해외 교포들이 모아준 응원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전달합니다. 국민들과 언론에도 공유드립니다.
6. 이 땅에서 다시는 일하는 직원 · 노동자들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슈퍼갑질이나 부당한 횡포가 자행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노동이 존중받고, 사람이 더욱 존엄한 사회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 1 : 한국에 온 외국 유학생의 편지(고대 박사과정 8년차 외국인 유학생 S님)

안녕하세요.

고려대 박사과정 중인 유학생입니다.

한국에 온지 8년이 넘었는데 tv나 인터넷을 통해 참여연대의 활동들을 많이 봤습니다.

원래도 시사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말이라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께 응원 메일 보내고 싶은데 메일 주소를 몰라서 못 보내겠네요ㅜㅜ 고민하던 차에 참여연대의 메일을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례인걸 알면서도 여쭙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저도 연구원에서 아주 힘든 시기를 견어왔고, 가족까지 세상을 떠나 아주 힘들었는데, 교수님과 친구들의 응원이 정말 저한테 힘이 되었습니다. 2014년은 참 시련도 많았습니다. 이제 2015년이 곧 다가오는데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한국어는 유창하지 못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이 외롭지 않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 싶네요...

사실 오늘도 tv에서 박창진 사무장님 인터뷰 장면을 봤는데 공황장애를 겪고 있으시며, 살도 많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ㅜㅜ

참여연대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별첨 2 : 재미교포들이 모아서 보내준 응원 메시지

- 200여명이 넘는 교포들이 MS워드 문서 47페이지 분량의 응원메세지를 모아서 보내주셨습니다. MS워드 문서로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박창진 사무장님께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대한항공에 근무 했었고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사무장님과 입사 동기이구요.

대한항공에서 7년 정도 일하다 미국 산호세에 이민 와 살고 있지요.

얼마전 대한항공 소식을 접하고 우연히 사무장님 이름을 들었을때 ‘

아... 내 동기였어..?’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언뜻 사무장님 얼굴이 떠올라 지더군요.

아마도 비행 한번 쯤은 같이 했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줄곧 관심을 두고 기사를 챙겨 보는데

사무장님의 소신과 용기에 더 이상 가만히만 있을수가 없어

오늘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대한항공에 몸담고 일했던 사람으로서 잘못된 관행과 눈가림으로 얼룩진

그 거대한 조직과 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도 잘 알기에

또한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동료와 이를 지휘하는 윗선 ..

그 가운데서 느낄 그 외로움과 절망감이 얼마나일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사회적 전환기에서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의 소름끼치게 무서운 침묵이었다.

이미 오랜 타성화가 되버린 탓인지,

그들 자신을 사랑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그들 스스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다수의 힘은 실로 엄청나서 때때로 나의 판단에 대한

회의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만

내가 걷는 길이 맞게 가는 길인지 아닌지

나약한 우리가 그런 흔들림을 마주할때마다 할 수 있는 최선은

공의로운 하느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국만리 타향땅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부패한 정부기관과 대한항공의 대처에 분노하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사무장님을 응원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절절한 소망과 외침을

함께 전해 드립니다.

어떤 분은 사무장님을 위해 온라인 기도모임을 만들기도 했어요.

정의를 위해 맞서 싸우시는 사무장님의 등 뒤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 믿네요.(저도 천주교 신자임)

사무장님의 인터뷰 동영상 보면서

신해철의 ‘기도’ 가사가 생각납니다.



참여연대



함께 만드는 꿈
1994-2014

공동대표 김균 · 이석태 · 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집에 질린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라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입술을 주시고,

내 눈물이 마르면 더 큰 고난 닥쳐와
울부짖게 하시고 잠 못 이루도록 하시며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노력한 것 그 이상은
그저 운으로 얻지 않게 뿌리치게 도와주시기를..

거친 비바람에도 모진 파도 속에도 흔들림 없이 나를
커다란 날개를 주시어 멀리 날게 하소서
내가 날 수 있는 그 끝까지

하지만 내 등 뒤편에서 쓰러진 친구 부르며
아무 망설임 없이 이제껏 달려온 그 길을
뒤돌아 달려가 안아줄 그런 넓은 가슴을 주소”

정의를 위해 시름하는 현재의 고통은 값지게 봉헌되어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고 울림이 되어
훗날 더 많은 이들이 걸어가게 될 새 길을 만드리라 믿습니다.

당신이 내 동기인것이...또 대한항공의 사무장이라는 것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네요.

힘내라 !!!!! 내 용감한 동기!!!!!!

2014.12.19

미국 산호세에서
당신을 응원하는 117기와 Missyusa 교민들로부터

MissyUSA

1 ***  
2014-12-17 am
10:42:00
166.--.242.111

미국 산호세 캘리포니아에서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

***  

2014-12-18 am 6:43:00
163.--.6.5

뉴욕에서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욕 오갈때마다 비행기에서
되길 원합니다. 화이팅!!

***  

2014-12-17 am
11:54:00
172.--.9.130

우리 나라 남자 중 추성훈 다음으로 제게 감동을 주는 인물이네요
니다!

***  

2014-12-17 pm 6:00:00
97.--.75.243

미국에 사는 모든 한국교포 들이 응원 한다고 전해줘요 좋은 결과

2 ***  

2014-12-17 am
10:43:00
50.--.94.246

세상 돌아가는 꼴, 특히 한국의 상황을 보면 좌절하다가 박 창진 사무장같은
생기고 힘이 납니다. 강자의 불의와 거짓이 당연시되는 풍조에서 질 싸움
있게 분연히 일어나서서 거짓과 싸우시겠다는 사무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
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돕고 싶습니다.

3 ***  

2014-12-17 am
10:44:00
68.--.125.79

사무장님 저희가 잊지않고 기억하며 당신의 용기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비록 내 사무장님보다 나이가 많지만 불의에 맞서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은 자랑스러운 한국의 남자입니다

4 ***  

2014-12-17 am
10:45:00
73.--.133.122

원글님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일리노이 아짐 응원 합니다!!!

5 ***  

저는 시카고에 사는 아짐입니다...옆에서 해드릴것은 없지만..마음속으로 항

2014-12-17 am
10:45:00
73.--.193.240

화이팅~~~!!!

6 ***  
2014-12-17 am
10:45:00
119.--.62.222

시카고에서 기도하고있습니다.주님께서 때에따라 용기와 새힘을 주실것입니

7 ***  
2014-12-17 am
10:46:00
73.--.193.240

참 원글님도 화이팅이에요~~!!

8 ***  
2014-12-17 am
10:46:00
98.--.82.19

제가 더 감사하네요. 꼭 힘내시라고 전해주셔요.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죠. 습니다. 힘들어도 지치지 마시구요. 언제라도 도울게있다면 저희 미씨님들 가능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십시오!!

9 ***  
2014-12-17 am
10:46:00
98.--.0.217

I pray for you from ohio

10 ***  
2014-12-17 am
10:48:00
97.--.87.226

글 참 잘 쓰시네요.
같이 일했던 동료라니 더 남다르겠어요.
저도 한마디 보탠다면
건강 해치지말고 혼자가 아니라 사무장님의 소신있는 행동을 지지하는 수만

11 ***  
2014-12-17 am
10:49:00
38.--.1.194

엘에이에서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  

2014-12-17 pm 4:11:00

104.--.86.33

우리모두 끝까지 지켜볼겁니다.
힘내세요!!!!!!!

12 ***  

2014-12-17

10:50:00

207.--.6.146

am

캐나다 미씨도 안타까운맘으로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응원합니다.

13 ***  

2014-12-17

10:51:00

50.--.252.191

am

씨애들에 사는 아집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  

2014-12-17

11:05:00

174.--.163.203

am

저도 시애틀 ~
사무장님위해 묵주기도 할께요
힘내세요 !!

***  

2014-12-17

11:16:00

108.--.137.227

am

저도 시애틀주민입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혼자 힘들다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화이팅 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4 ***  

2014-12-17

10:52:00

104.--.55.136

am

이번사건은 그어떤사건보다도 민생들한테는 중요한일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빈부차는 심해질것이고 재벌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질것 입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굶어죽을래 아니면 노예라도 입에 풀칠하래라는 식
이런분을 적극돕는일이 우리가 아니라도 미래의 아이들이 당할일을 조금이나
그야말로 뭉치면 그나마 큰물결을 거스리기라도 하겠쥬

***  

2014-12-17

am

11:26:00

뉴욕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108.--.39.87

***  

2014-12-17

am

11:41:00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응원 합니다. 화이팅!!!!

64.--.56.2

***  

2014-12-17 pm 6:11:00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응원합니다.

24.--.99.239

15 ***  

2014-12-17

am

10:52:00

큰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시고, 이번 일을 잘 마무리하면서 늘 행복하시길 바라

50.--.197.206

16 ***  

2014-12-17

am

10:53:00

화이팅!!!!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될 거 같아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켜 보는 제가 이룬데 얼마나 참담하시고 사방이 벽일지 생각 만으로도 답
잘 주무시고 식사라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67.--.124.242

17 ***  

2014-12-17

am

10:53:00

우린 항상 내가 나서봐야 뭐가 바뀌겠어
모난 돌이 정 맞지
가만히 있으면 50점은 간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갑질 하도록 방관하는 세상
주했습니다
박창진 사무장님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고 참을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음고생 많으시고 힘 드시겠지만 저희들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또 지지합
용기 내어주신것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그 행동이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 내려갈겁니다
앞으로 아무리 가진 자들이라도 함부로 행동하면 안되겠구나 자각하겠죠
이런 일 하나 하나가 모여 이 사회의 발전을 이루어 가리라 믿습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장님

108.--.7.194

18 ***  
 2014-12-17 am
 10:53:00
 216.--.195.188

"위 두 아우어 베스트 투 겐 이노센트 사무장 아웃 오브 디스 플레인. 이
 마우스 비빔밥 쳐묵쳐묵. 땡스 포 유어 코어퍼레이션."

제가 찾아서 퍼왔어요 ㅋㅋㅋ
http://missyusa.com/mainpage/boards/board_read.asp?section=talk&id=talk7&eld=title&mypost=0&key_word=%B9%E6%BC%DB&idx=4018767&ref=190771

***  
 2014-12-17 am
 10:56:00
 98.--.82.19

다시봐도 대애박! 사무장님.. 이거 보시고 잠시나마 웃을수 있음

19 ***  
 2014-12-17 am
 10:55:00
 75.--.129.58

혼자 힘든 싸움이라 생각하지 말고 굳건하게 꼭 헤쳐나가기길 부탁드립니다.
 인이 함께합니다. 산호세에서 응원 보내요

20 ***  
 2014-12-17 am
 10:56:00
 67.--.147.153

혹시라도 더 부당하고 힘든일인지 생기시면 이곳 미씨님들께 꼭 알려주시고
 도와드리고 싶어요. 힘든신 싸움이시겠지만 응원하고 돕고싶은 사람이많은
 감사합니다.

21 ***  
 2014-12-17 am
 10:56:00
 8.--.219.21

무한 응원합니다. 화이팅!

22 ***  
 2014-12-17 am
 10:57:00
 73.--.105.112

사무장님 인터뷰 보면서 많이 울었네요
 정직하고 바른분 인것 같은데
 힘든일 소신있게 대처하고 포장없이 팩트만 조리있게 잘 말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장합니다
 사무장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23 ***  
2014-12-17 am
10:57:00
108.--.165.137

어떤 압박에도 끝까지 굴하지 마시고, 소신있게 이겨내시길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특히 노모를 걱정하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사무장님... 함께 뭉클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24 ***  
2014-12-17 am
10:58:00
172.--.28.7

응원합니다...그리고 힘이되주고도 싶어요~화이팅!

25 ***  
2014-12-17 am
10:59:00
71.--.199.54

응원합니다!!

나중에 다 정리되면 짜라시 뿌린것들도 싸그리 쓸어버리세요

26 ***  
2014-12-17 am
10:59:00
173.--.70.153

그런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장님의 정
드립니다.
미국사는 많은 미씨들이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도울 일이 있다면 함께
니 힘내세요.
사무장님과 어머니의 눈에 더이상 눈물 나는 일 없도록 이 모든 일이 선하
도합니다!

27 ***  
2014-12-17 am
10:59:00
69.--.54.241

사무장님.
우선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꼭 끝까지 힘내세요!!!
There is KARMA 나쁜짓 한것들 결국엔 다 지들이나 지들 자식들이 돌려 받
사무장님 전 끝까지 사무장님 편!!!

28 ***  
2014-12-17 am
10:59:00
73.--.6.191

사무장님 잘 견디시리라 믿습니다..너무 존경스럽습니다..그리고, 사무장님
지 않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29 ***  
2014-12-17 am
11:00:00
50.--.15.76

한 개인으로서 얼마나 힘겨운 무게에 짓눌리고 계실지 그저 짐작만 합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으나 당신같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
삶은,역사는 당신과 같은 사람으로 인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음을 저는
당신의 옆에서 그분이 함께 계심을 기도할게요

30 ***  
2014-12-17 am
11:02:00
174.--.155.41

한국에서 제대로 처벌이 안되고 힘드시면 꼭 미국 변호사랑 상담해 보시고 미국에서 소송 하세요. 그리고 꼭 미국 항공사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원글님 통해서 저희 미씨들하고 상의해 주세요. 이럴때 일수록 건강 꼭 챙기시구요. 꼭이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무장님의 용기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미약하나마, 저희 미국사는 미씨들이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구요. 도움이 필요 하시면 서슴치말고 꼭 말씀해주세요.

↳ ***  
2014-12-17 pm
12:13:00
118.--.203.76

영어도 잘하실텐데 이참에 옮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소송은 꼭 변호사 통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버티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31 ***  
2014-12-17 am
11:02:00
104.--.0.28

처음으로 이런 곳에 댓글을 남겨봅니다. 사무장님, 최근 며칠동안 사무장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득한 죄악과 거짓, 탐욕들 이런것들에 맞서 싸우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생으로 나와서 결혼하고 직장을 갖고, 10년간 살았지만 기회가 많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와 부패, 더러움. 법이 통하는, 상식이 통하는 이곳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곳에서 힘없이 싸우는 소시민들을 생각하면 그 억울함이 전해져 제게 이번 사무장님의 용기있는 행동을 보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곳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라도 사무장님처럼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알지만 끝까지 싸웠을 겁니다. 비록 겉으로는 지는 싸움이지만 적어도 나 때문입니다. 옳은 가치를 위해 싸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무장님, 담대해 또 응원합니다.

↳ ***  
2014-12-17 pm
12:01:00
72.--.1.166

pm 저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

↳ ***  
2014-12-17 pm
12:22:00
98.--.197.18

pm 저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 ***  
2014-12-17 pm 1:38:00
76.--.92.220

저도 사무장님 인터뷰 보면서 맘이 너무 쓰리고 가슴아파 눈물이 힘내시고 끝까지 싸워서 좋은결과 보시기를 기도할게요.

***  

2014-12-17 pm 8:07:00
183.--.229.196

31번님 감동입니다....ㅠㅠㅠ

아무도 싸우지 않으면 그 곳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32 ***  

2014-12-17 am
11:03:00
99.--.174.105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사무장님..

힘드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차분하고 조분조분 인터뷰 하시는 모습만 봐도 한치의 거짓도 없는것이 느껴

그리고 참 잘생기셨어요.. 제가 유부녀만 아니였어도 아후.. (요건 농담 입니

끝까지 관심놓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  

2014-12-17 am
11:15:00
108.--.232.69

그냥 본인의 직분을 다하고 권리를 찾고자 하는거 일뿐인데 그게

독립투사, 나라를 구하는 정도로 힘든 일이란게 참으로 안타깝습니

혼자서 하는 힘겨운 싸움..힘이 되어드릴 방법이 없어 안타깝지만

두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대 재벌기업상대로 거창한 승리를 바라는게 아니라 그냥 잘못돈

어느 누구라도 처벌받고, 피해자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바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텐데 조용하지만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힘내셨음 좋겠네요.

33 ***  

2014-12-17 am
11:04:00
75.--.150.22

미씨의 힘이 어느정도인지 아시죠? 사무장님 조금더 힘내 주세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34 ***  

2014-12-17 am
11:05:00
174.--.27.246

사무장님,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님과 가족들께서 너무 힘드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35 ***  

2014-12-17 am
11:06:00
108.--.248.20

미국 뉴욕에서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무모한 갑질이 다

회가 되는데 일조하시고 계시니 화이팅 하세요.

36 ***  

2014-12-17

11:06:00

68.--.185.94

am

사무장님!
 정의는 사무장님을 따라다닙니다.
 저희가 응원 뽀세게 하고 있습니다

37 ***  

2014-12-17

11:07:00

74.--.72.231

am

힘내세요!!!
 내힘으로 대한항공 그만두는 일은 없을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힘없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무장님의 정의로운 용기에
 박수보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다는걸
 잊지마세요. 화이팅!!!!

38 ***  

2014-12-17

11:08:00

98.--.146.127

am

박창진 사무장님 힘 내세요, 선한 끝은 없어도 악한 끝은 있다는 말이 있잖
 조현아씨, 제발 죄의 댓가를 받으세요, 엄마의 죄가 자식에게 되물림 된다는

39 ***  

2014-12-17

11:10:00

50.--.228.61

am

여기 뉴저지에서도 사무장님 응원합니다~화이팅~~!!!!

 ***  

2014-12-17 pm 7:19:00

74.--.38.141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Romans 8:31).
 Park!

40 ***  

2014-12-17

11:12:00

125.--.0.51

am

멀리서나마 항상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사무장님의 용기있고 소신있는 행동을 보며 우리 사회의 희망을 함께 봅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기도합니다.

*** m e

2014-12-17

12:03:00

12.--.111.56

pm

3333333333 사무장님 화이팅!!!

41 *** m e

2014-12-17

11:12:00

117.--.71.79

am

사무장님~ 혼자가 아닌거 아시죠? 이미 당신은 승자입니다^^ 함께
나서지 못하는 그날 함께 있던 동료들의 맘도 헤아려주시고 슬퍼마세요~
미씨아침들은 다 알고 함께 합니다
힘내고 슈퍼갑에 밀리지말고 소신껏 살자구요^^ 기도할게요~

42 *** m e

2014-12-17

11:13:00

24.--.72.213

am

정말 저희가 힘이돼어서
이분 퇴사안당하시고,그럴수있는 방법없을까요?
일단은 작지만, 저라도 대한항공 안탈라구요

43 *** m e

2014-12-17

11:14:00

67.--.150.173

am

글 솜씨가 없는내가 이럴땐 참 못나보이네요...힘내세요!응원합니다!분명 더
니다!!끝까지 힘이 되어 드릴게요!!아..더 멋지고 힘이나게 쓰고 싶은데...절
드리고 싶습니다

44 *** m e

2014-12-17

11:16:00

69.--.121.251

am

박창진 사무장님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온 국민들이 박창진 사무장님을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45 *** m e

2014-12-17

11:16:00

140.--.44.7

am

사무장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소신껏 발언하면
그때 읽고 힘냈던 성경 구절 공유하고 싶습니다.
Isaiah 30:18
Yet the LORD longs to be gracious to you he rises to show you compa
God of justice. Blessed are all who wait for him!

46 *** m e

2014-12-17

11:17:00

108.--.97.84

am

멀리사는 저의 글 한줄이 얼마나 힘을 드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
내 나라에 아직도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고,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일하
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한 때 뜨겁고, 응원도 어느 시간 지속되겠지만,
어쩌면 사무장님은 긴 시간 철저히 혼자의 시련을 견뎌내셔야 할수도 있겠
최대한 제가 접할수 있는때까지 관심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요.

47 ***  
2014-12-17 am
11:17:00
172.--0.255

.참으로 이시대에 용기있으신 분이예요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얼마나 외롭고 힘드실지 눈물이 날라 합니다.뒤에
주니
부디 용기 잃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8 ***  
2014-12-17 am
11:18:00
98.--236.94

여기 그린빌 싸우스 캐롤라이나 에서도 사무장님 소식 매일 찾아보고 분노
가득찼지만 출생 로터리를 탄 덕분에 안하무인으로 날뛰는 인간들 하루바
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우리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 힘 내시길 바랍니다. D
의 권리를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9 ***  
2014-12-17 am
11:18:00
74.--70.161

사무장님 혼자 견뎌내기에 너무 힘든 과정이지만, 맞서 싸우기를 자처해주
니다.
너무 힘든거 알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저희들이 할수있는건 다 해볼께
존경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 용기 정말 마음은 있지만 행동은 어려운데, 힘

50 ***  
2014-12-17 am
11:19:00
71.--219.205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힘내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51 ***  
2014-12-17 am
11:19:00
76.--241.175

남자분이 미시 들어오시는거 안 되지만 내 미씨 아이디 드리고 이곳에 들어
직접 미씨들의 많~~~~ 은 응원의 글들을 읽게 해 드리고 싶어요
미씨 명예회원 자격 드리면 안될까요?
You are in my prayers, 박 사무장님 !!!!!

원글님께도 축복이 함께 하시길요
원글님, 미씨들이 도울 수 있는 일 있음 이곳에 알려 주세요. 모금이라든가

52 ***  
2014-12-17 am
11:20:00
64.--22.143

이번 일 지켜보고 응원합니다 대한항공 어떻게 일처리하나 보겠어요

53 ***  

2014-12-17

11:20:00

71.--.219.205

am

용기있는 당신을 힘껏 응원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힘내세요!

54 ***  

2014-12-17

11:20:00

76.--.3.15

am

저 윗분 처럼 저도 미국에서 소송 진행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55 ***  

2014-12-17

11:21:00

71.--.166.84

am

보스톤에서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행복해졌습 좋겠습니다 힘내세요~햏팅

56 ***  

2014-12-17

11:21:00

96.--.149.4

am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John 8:32 햏

57 ***  

2014-12-17

11:22:00

50.--.59.45

am

박창진 사무장님 힘내세요!!!!힘든 싸움이지만 대한항공이 변하는데 큰 몫을

58 ***  

2014-12-17

11:23:00

71.--.167.165

am

외로운 싸움이 되겠지만, 결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무장님의 보면서 비겁하게 살아온 날들을 반성하고 있을 것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시느라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알려주십시오
대한항공만큼 돈은 없어도 여기 미씨들 정의로운 일에 사용한다면 성금 모
운 미씨들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주기도 바칩니다.

59 ***  

세월호이후 우울증처럼 크게 웃지도 못하겠고 항상 마음속에 뭔가가 얹혀
그래도 희망을 느끼며 살수 있는 것은 박창진사무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

2014-12-17 am
11:29:00
99.--.196.69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 함께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60 ***  
2014-12-17 am
11:29:00
176.--.115.58

대한민국의 후세들이 보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는데 큰 획을 긋는 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강해지길 바랍니다.

61 ***  
2014-12-17 am
11:31:00
68.--.17.5

끈질기게 지켜 보겠습니다...혼자 외로운 싸움이라 힘드시겠지만 멀리서나마
소신있는 행동을 응원하고 있으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62 ***  
2014-12-17 am
11:31:00
72.--.110.58

돌싱도 괜찮으시다면 연락주세요...저도 얼굴 좀 되요.

 ***  
2014-12-17
11:32:00
108.--.48.52

a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화이팅~!!!

 ***  
2014-12-17
11:45:00
72.--.242.155

a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분 밀어 드리고 싶음

63 ***  
2014-12-17 am

텍사스 오스틴입니다.
사무장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11:33:00
72.--.126.36

64 ***  
2014-12-17 am
11:34:00
108.--.48.52

욕하고 싶으신데 성격상 못하시면 연락주세요...제가 쌍욕 좀 되요.

***  

***  
2014-12-17
11:42:00
71.--.167.165

am 64번님, 전 쌍욕하다가 이혼까지 당할 뻔한 죄많은 여자에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찰진 쌍욕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욕때문에 여럿 기절시킨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이럴땐
요.

***  
2014-12-17
11:45:00
68.--.246.208

am ㅎㅎㅎㅎㅎ언니들 같이가요. 전 소실적 껌좀 씹었답니다. 애낳고
지만 도움드릴수 있어요.

***  
2014-12-17 pm 2:39:00
72.--.220.6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 마음이 아파서 사무장님 기사도 잘 못읽는데 옹기넷 이 글 읽
사무장님 힘내시고 항상 당당하세요.

***  
2014-12-17 pm 5:50:00
99.--.14.180

저랑 듀엣 어떠세요?
한번에 열 개가 넘는 욕을 속사포로 싸 드릴 수도 있고 듣도 보도
수 있어요

65 ***  
2014-12-17 am
11:41:00

사무장님의 그 큰 옹기에 박수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기도합니다. 사무장님과 가족에 모두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정.
사무장님이 지키고 싶었던 모든인간은 평등하고 존귀한 가치를 지닌다는
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24.--.213.40

66 ***  

2014-12-17

11:41:00

72.--.243.98

am

버지니아에서 응원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당신 뒤에는 우리들이 있
당당히 대응하시구요. 화이팅~입니다.

67 ***  

2014-12-17

11:42:00

23.--.66.36

am

계란에 바위치기는 비록 계란은 깨져도 그 돌에 흔적을 남깁니다.
큰 용단에 박수 보내구요, 멀리서 응원 합니다!!!

68 ***  

2014-12-17

11:42:00

216.--.153.130

am

힘내세요!!!!!!!!!! 이번일 잊지 않고 끝 까 지 지켜 보고 있을꺼예요. 응원합

69 ***  

2014-12-17

11:43:00

50.--.179.56

am

사무장님 용기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70 ***  

2014-12-17

11:43:00

174.--.191.71

am

버지니아 아줌마 한명 더 추가합니다.
용기있는 소신으로 아직 대한민국 남자 족지않았다를 보여주시는 사무장님
우리 아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71 ***  

2014-12-17

11:43:00

72.--.242.155

am

혼자서 하시는 싸움이 지치고 외로우실텐데...힘 내시고요.
혹시 병풍 효과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조넛 이겨 먹을 비주얼이거든요...

72 ***  

2014-12-17

am

님의 소신있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

11:46:00
96.--.120.98

73 ***  
2014-12-17 am
11:48:00
107.--.76.51

부끄럽지만 평범한 직장인으로써의 저는, 고똥은 일상과 책임질 가족이 있
에 종종 숨어버리지요.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사무장님의 용기가 참 고맙습니다. 당
이들의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해 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힘내세요!

74 ***  
2014-12-17 am
11:50:00
173.--.9.216

뉴저지에서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75 ***  
2014-12-17 am
11:50:00
72.--.212.115

변호사 선임하시라 여기 저기 계속 댓글 달고 있는 아침인데요. 꼭 변호사

76 ***  
2014-12-17 am
11:55:00
69.--.137.83

펜실베니아 사는 아줌입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아무이유없는 횡포로 인해
을 감당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사무장님이 인터뷰 하신 모습
해도 너무나 갑질의 횡포와 억울함에 저도 분노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가 너무 싫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인터넷도 없던 시대라면 더 억울하게 넘
도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말을 믿습니다. 인과응보 라는 말을 믿습니다.
싶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당장은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많은 미국에 사는 사무장님을 응원하는 유학생들과 교민들도 그렇게 하기로
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힘이 된다면 돕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77 ***  
2014-12-17 pm
12:02:00
73.--.90.74

뉴저지에서 응원합니다
사무장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모두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당하는 불이익을 참고 삭히고 잊으려고 노
싸우시는 사무장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롭고 절망스러우시겠지만 분명히 사무장님은 옳은 일을 하고
힘내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78 ***  

뉴욕에서도 응원합니다 그 용기와 기개에 탄복합니다 역사를 다시 쓰고 있

2014-12-17 pm
12:03:00
64.--.32.254

79 ***  
2014-12-17 pm
12:05:00
64.--.32.254

뉴욕에서도 응원합니다 그 용기와 기개에 탄복하며 역사를 다시 쓰고 있으

80 ***  
2014-12-17 pm
12:05:00
73.--.90.74

뉴저지에서 응원합니다
지금 현재는 외롭고 많이 절망스러우시겠지만 분명히 옳은 일을 하고 계십
저희가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81 ***  
2014-12-17 pm
12:09:00
69.--.129.45

사무장님
앞으로 가야할길이 아주 멀고 험할것같네요
얼마나 힘든길인지
우리는 아직은 알수 없지만
사무장님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늘 지켜봐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비록 가진 힘은 없지만
함께 합시다
뉴욕 사는 아줌마 올림

82 ***  
2014-12-17 pm
12:18:00
71.--.161.211

왕정시대에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왕도 조너처처럼 행동하는 것이 반복되면 현
으로 그 자리 차고 앉았으면 겸손할 줄 알아야지 어디서 왕족행세를... 왕족
처참 당하고도 남을 월권행위에 국민을, 아니 직원을 발의 때만큼도 대우 안
너 가족 몰아내야 합니다. 더 이상 선한 사람들의 눈물위에 노를 저어 유우
요! 신해철 노래 가사 좋네요. 오레곤에서 응원합니다!

83 ***  
2014-12-17 pm
12:25:00
98.--.82.239

아닌걸 아니라고 하고, 맞는걸 맞다고 말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저의 성격과 비슷하다는걸 느꼈어요, 저 역시 그렇게 행동했었을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 그만 두시지 마세요.
잘못하신것 하나도 없고, 그만두면 지시는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

84 ***  
2014-12-17 pm

혼자라고 생각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 속으로나마 응원하고 있
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라도 돕고 싶구요. 사무장님의

12:34:00
 74.--.239.235

85 ***  
 2014-12-17 pm
 12:53:00
 68.--.64.219

저는 사무장님이 인터뷰 하셨다는 기사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당연히
 했거든요..저도 한국서 회사 다닐때 불의를 잘 못참고 해서(업무상의 내부고
 영업쪽..ㅋ) 저때문에 위원회도 열리고 참석도 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떨리던
 큼 큰 처벌은 안당했는데 다음해에 저 전사 표창장 받았더랍니다 ㅎㅎ
 고진감래라고 했어요~ 잘 풀리시길 버지니아에서 응원합니다!

86 ***  
 2014-12-17 pm
 12:55:00
 74.--.209.17

박 사무장님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절대로 기죽지마시고 사실을
 다음은 하늘위에서 도우실겁니다. 모두 기도하고 돕고있음을 잊지마시고

87 ***  
 2014-12-17 pm
 12:59:00
 98.--.123.112

힘내세요 박창진 사무장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신다면 행동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란걸 잊지마세요 ^^
 존경합니다.

88 ***  
 2014-12-17 pm 1:15:00
 162.--.147.144

그러려니 하며 살았던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도 사무장님 보며 다시 일으켜

89 ***  
 2014-12-17 pm 1:26:00
 99.--.85.152

박사무장님, 미시건에서도 응원합니다. 힘 내시고요. 여기서 무엇을 어쩌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미시님들 굉장한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 모
 하구요. 계속해서 관심가지고 보겠습니다. 오유에도 82쪽에도 많은 미시님
 요하시면 꼭 꼭 포스트 해주세요! 사무장님, 존경합니다. 아자 아자! 힘

90 ***  
 2014-12-17 pm 1:45:00
 107.--.160.72

사무장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세상에 부와 권력으로 사람의
 자존감을 한없이 무너뜨리는 사람과 맞서는 사무장님의
 모습에서 저도 많은 희망과 용기를 배웁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91 ***  
 2014-12-17 pm 1:48:00
 124.--.247.65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무장님~ 응원합니다.

***  

2014-12-17 pm 3:51:00
72.--.133.8

사무장님..... 사건 정리 되면 울동네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가이.
응원 열심히 할께요..~~~~

92 ***  

2014-12-17 pm 2:03:00
24.--.132.140

샌프란시스코 에서 응원합니다.

***  

2014-12-17 pm 3:17:00
172.--.39.39

샌프란에 아마도 마음모아 힘내시라는 분들 많을거예요
힘내세요,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93 ***  

2014-12-17 pm 2:30:00
173.--.38.225

달라스 아줌마입니다. 사무장님을 응원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부조.
신 그 용기.. 어떻게든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94 ***  

2014-12-17 pm 2:46:00
218.--.41.9

사무장님, 전 귀국미씨 입니다.
사람 맘 다 똑같을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뷰에서 사무장님께서 보여주시고 듣게해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눈빛
마나 선량하시고 바른 분이신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만, 한국에서도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꼭 잊지마세요!
만, 사무장님을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95 ***  

2014-12-17 pm 2:53:00
108.--.136.123

사무장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도움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사무장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96 ***  

2014-12-17 pm 3:00:00
72.--.188.79

너무너무 멋진 분이세요~~~.
이런 분이 계시므로 세상은 그래도 살아볼만하다 생각합니다.
박 창진 사무장님 성함 기억하고있겠습니다.
미래 어느날에 언제 식사라도 대접할수있는 영광을 누릴기회가 제게 있기를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응원해드립니다~~.

97 ***  

부끄러워 하지마세요.

2014-12-17 pm 3:08:00
70.--.139.68

자괴감이나 참혹함이나...그런 마음도.
왜냐하면...사무장님은 잘못된게 없으니까요.
그저 열심히 살고 말은바 책임을 다했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동료들을 도왔을
당신이 죄가 있다면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를 비참하게 하는 일이 될테니
고개드세요. 당당하게.
부모와 가족을 위해 한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사무장님이
다.
힘내세요.우리가 기도하고 지켜볼 것이며 응원합니다.
언제나 당당한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기도합니다.

98 ***  
2014-12-17 pm 3:09:00
71.--.222.182

잘못한 것들이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더 당당한 이 더러운 세상. 사무장님
맞서주셔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셨어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라는 사
서도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네요. 마음 깊이
다. 힘내세요.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혹여나 마음쓰실 어
두셨으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어머니 건강도 좋아지시길 기도드립니다

100 ***  
2014-12-17 pm 4:12:00
67.--.126.255

처음 댓글쓰는 할머니입니다. 답답한 고국의 현실속에서 곳곳한 사무장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01 ***  
2014-12-17 pm 4:30:00
142.--.63.220

말씀과 기도로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102 ***  
2014-12-17 pm 4:42:00
184.--.119.74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갑니다 -신영복 '나무야 나무
세상이 당신을 어리석다고 말해도
바위로 계란을 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해도
바로 그 당신의 우직함이, 어리석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
힘내시고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103 ***  
2014-12-17 pm 5:26:00
122.--.184.105

내 평생 너무 가슴아파 남을 위해 간절한 기도드리기는 처음인 듯해요. 살
있다 치더라도 이번일은 정말 황당하군요. 힘내세요.

104 ***  

박창진사무장님!

2014-12-17 pm 5:41:00
71.--.6.44

기도중에 늘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진분이십니다

105 ***  
2014-12-17 pm 5:46:00
173.--.146.3

사무장님 힘내십시오! 비록 미국땅에 떨어져 응원하지만 이 미씨방은 한국
을만큼 나름 파워가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런 곳에서 몇십만의 교민들과 교
무장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때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 힘을 실었던것처럼 우리는 언제고
되있는 아줌마들입니다. 우리가 지켜볼것이구요, 사무장님 위험에 빠지지 않
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굳은 심지와 용기 그리고 잘생긴 얼굴로 아줌마들 가슴도 훈훈하게 해
하십니다!!! ^^

106 ***  
2014-12-17 pm 5:51:00
23.--.248.137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응원하
니다.

107 ***  
2014-12-17 pm 6:01:00
70.--.200.243

사무장님, 정의와 상식과 법이 적용되는 사회가 쉽지만은 않다는 조국의 현
받는 처우가 가해자보다 힘들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용기와
서서 감사드립니다. 조국 의 민주주의 발전에 작은 한걸음으로 도움이 될것
박수쳐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응원해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주세요.
존감을 지키시기로하셨단 말에 저도 앞으로 더욱더 저의 자존감을 지키도록

108 ***  
2014-12-17 pm 6:12:00
70.--.77.14

많은분들이 사무장님의 의로운 모습에 힘을 보태고 싶어합니다. 화이팅!

109 ***  
2014-12-17 pm 7:33:00
76.--.32.52

켈리 발렌시아에서 응원말씀드립니다
정의를 위해 가시발길을 선택한 사무장님을 존경합니다
사무장님의 결단이 부조리한 한국사회를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될거예요
식사 꼭 챙겨드시고 건강하세요!

110 ***  
2014-12-17 pm 7:38:00
108.--.46.198

힘든 싸움에 큰 용기를 내신 사무장님 응원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상대로 많이 지치시겠지만 힘내세요. 꼭 좋은 결과 있을꺼라 믿어요

111 ***  

전직 대한항공 승무원입니다. 퇴사한지 벌써 25년도 넘었네요. 먼저 이런기

2014-12-17 pm 7:51:00
173.--.151.219

할수있게 좋은 아이디어 내주신 원글후배님께 감사합니다. 사건난후부터 멀
떨게 도움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격려할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던차에 이기호
무장님 먼저 너무 대견하고 장하십니다. 한국 떠나산지 오래되고 미국인상

112 ***  
2014-12-17 pm 7:52:00
24.--.58.62

사무장님의 용기에 큰 박수 보내 드립니다.
화이팅!!!!!!!!!!!!

113 ***  
2014-12-17 pm 9:15:00
99.--.41.80

부디 사무장님이 가지신 신념과 소신이 불꽃 처럼 피어나 불나방 처럼 달가
는 검은 손을 단숨에 비틀어버리는 지혜의 힘이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114 ***  
2014-12-19 pm 2:39:00
108.--.76.49

사무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힘내세요 끝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원글님, 정말 고맙고 좋은일 하셔서 제가 대신 감사하네요. 박창진 사무장님
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을거 같아요. 뭔가 사무장님
리고 싶은데 어떻게 있을까요?

☞ ***  
2014-12-17 pm 6:28:00
71.--.167.165

저도 동참해요.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한다거나 할 때 비용이
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  
2014-12-18 am 6:19:00
73.--.90.74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박사무장님께 도움이 된다면 기쁨 마음으로 돕고

2 ***  
2014-12-17 pm 6:47:00
108.--.162.78

저도 동참하고 싶은데요..한가지 궁금한 건 어떻게 보내드릴 계획이세요? 저
싶거든요

3 ***  
2014-12-17 pm 7:03:00
142.--.38.103

외롭고 힘든 싸움하고 계시는 그 분께 마음이지만 진정 응원해 드립니다

4 ***  
2014-12-17 pm 7:12:00
73.--.108.153

그 사무장님이 비행기에서 내릴때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무지
니까
굉장히 진실한 사람으로 보이던데요. 아무튼 그분이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5 ***  
2014-12-17 pm 8:11:00
24.--.93.209

사무장님 얼마나 어두운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계실까요
잠시후 이 상황후에 미국서 소송하도록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아직 상식이 통하지 않을것입니다
사람위해 그것도 한참위에 사람있는줄 아니까요
그러나 영원한것 없겠지요

6 ***  
2014-12-17 pm 8:19:00
66.--.166.45

저도 동참합니다.
외롭고 힘드실 겁니다... 그 용기에 응원 보내드립니다.
힘든싸움 이기시길 바랍니다.

7 ***  
2014-12-17 pm 9:14:00
98.--.156.25

정말 용기있는 행동이세요
지지하고 응원해요
힘내세요! 박사무장님!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국민은 응원합니다

8 ***  
2014-12-17 pm 9:22:00
1.--.173.162

박창진 사무장님
진심을 담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곧 밝은 햇살이 박사무장님께 비칠거예요
현실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든 방법이 생기면 지

9 ***  
2014-12-17 pm 9:23:00
73.--.252.191

힘내세요
외롭고 힘들고 지칠 싸움이지만 포기하지 마시라고 죄송하지만 말씀 드리고
응원합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시카고 아침입니다
참 시카고 오실때 꼭 따뜻한 밥 한끼 대접하고 싶네요...

10 ***  
2014-12-17 pm
10:40:00
76.--.94.209

이시런 헤쳐 나갈 수있게 기도합니다 .
주님이 사무장님을 인도 하시리라 믿습니다 . 힘내세요 !!
무엇이던 도움이 된다면 동참 하겠습니다 .

11 ***  

2014-12-18 am 1:01:00

124.--.233.113

저도 한때는 대한항공과 관계가 있던 사람입니다.
언제 어딜가도 친정같이 느껴졌던 대한항공이었습니다.
그안의 많은 문제점들을 어렵פות이는 짐작하고 있었으나.....
이정도라고 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박사무장님.
힘내세요.
사무장님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2 ***  

2014-12-18 am 2:11:00

172.--.13.231

옳은 길을 가기 위해 가시발을 기꺼이 헤쳐나가는 사무장님, 존경하고 축

13 ***  

2014-12-18 am 3:42:00

59.--.47.117

힘내세요. 전국민.전세계 교포도 사무장님 편입니다.

14 ***  

2014-12-18 am 3:56:00

124.--.208.179

박창진 사무장님은 정신적으로 갑이십니다. 인터뷰 영상보고 너무 감동받았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대단한 용기를 내셨던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고, 그것이 막대한 움직임이 될것입니다. 박 사무장님이 정말 가지기 쉬워도 가질 수 없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람입니다. 진정한 위너! 박창진님 존경합니다.

15 ***  

2014-12-18 am 5:06:00

50.--.107.8

박창진 사무장님 힘드시고 외로우시죠.....
사무장님의 모든 힘드신 일에 적극 응원드리고 기도드립니다.
힘내시고 건강챙기세요.

16 ***  

2014-12-18 am 6:17:00

73.--.90.74

박사무장님 미국에서 소송하는 것도 꼭 알아보세요
미국에서는 사무장님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권리가 훨씬 많습니다.
화이팅!!

17 ***  

2014-12-18 am 6:31:00

71.--.89.63

박사무장님 힘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박사무장님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어요.
저도 항상 잊지않고 사무장님 위해 기도 드릴게요.
주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한다는것 잊지 마세요.
앞으로 뭘 하시던 도울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힘내세요.

18 ***  

2014-12-18 am 7:24:00

139.--.128.43

나 한몫 편하자고 생각했으면 승무원 혼날때 나서지도, 매뉴얼대로라고 말하
부사장 심기 안 건드리고 승무원 더 혼내고 그랬으면 지나갔을 일인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책임 하에 있는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힘들시고 험하죠? 사회 조직이 계란으로 치는 바위 같고
저는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직접 당하고 계시는 사무장님의 고통은

마음을 다해 함께하고, 저도 신자이니 기도도 하고 (워낙 다윗과 골리앗 같
힘을 합칠 수 있는 것도 있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19 ***  

2014-12-18 am 8:40:00

172.--.16.120

매일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꼭 견디시고 웃는 날 오길 바래요.

20 ***  

2014-12-18 am 8:58:00

172.--.15.200

사무장님 힘내세요..^^절대로 혼자가 아니란걸 기억하시구요
미국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응원할게요..휴스턴에서

21 ***  

2014-12-18

am

10:38:00

108.--.76.49

저또한 댓글을 잘 안하는 사람이지만 이번 땅콩 사건을 그냥 보고 지나갈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부사장이라는 사람 인성이 그것밖에 안된다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박사무장님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이번일이 본보기가되어 직원들을 가족
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22 ***  

2014-12-18

am

11:29:00

76.--.224.31

한국사회 특히 조직사회에서 아닌걸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기란 정말
정상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무장님을 응원할것이며, 아직까지
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박사무장님을 응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힘내세요. 자

23 ***  

2014-12-18

pm

12:26:00

184.--.41.70

얼굴에 선하심이 보여요 ... 응원 합니다. 힘내세요 절대 혼자라는 생각 하
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24 ***  

아이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박사무장님 같은분이 계셔서 감사한 마음입니

2014-12-18 pm
12:50:00
173.--.197.94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실지 이 말도 안되는 세상에 살아가는 한사람으로서
무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언젠간 이날을 기억하며 웃는날이 올거고,
그날은 지금보다 더 나은날일거라 생각합니다♡

5 ***  
2014-12-30 am 9:31:00
75.--.68.55

참여연대 통해서 사무장님 후원할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만약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지원하고 싶습니다.
사무장님, 힘든 일을 견디고 계신데 자신의 양심을 팔지않는 가치는 그 어느
중한 것입니다.
운동도 다시 하시고 건강 찾고 쉬시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 있을거예요.
화이팅하시고 꼭 잘 챙겨 드세요~

6 ***  
2014-12-30 am
10:11:00
24.--.240.149

우리나라에 참여연대같은 사회정의 구현단체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안심이 됩니다.
이런 단체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힘을 실어주는 것, 저도 찬성해요.

박창진 사무장님,
먼저 당신의, 불의에 굽히지 않으신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사무장님은 아무잘못도 하신것 없으십니다.
오히려 직무를 충실히 하셨던 당신이
단지,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에 있었던 이유만으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셔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곳 미국에서 사무장님을 응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요,
하루 빨리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장님 같은 성실한 분들이 대우받는
그런사회가 되도록 우리모두 힘을 모아 화이팅합시다.

 ***  
2014-12-30 am
10:35:00
64.--.56.2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사무장님 많이 많이 힘 내세요!!!

7 ***  
2014-12-30 am
10:20:00
173.--.59.210

전직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던 사람입니다.
25년 전이네요. 그당시는 이 정도로 인권이 유린되지는 않았었다고 생각하
사무장님은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어서, 많이 힘들
다.
누구나 쉽고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이분처럼 좁고 어두운 길을 택하
사회를 지켜주는 등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위로의 댓글이라도 남겨서 응원이 되고 힘이 된다면 열번,스무번
끝까지 버티시며 기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글님, 자주 업데이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2014-12-30
12:01:00
24.--.211.83

pm
화이팅!

8 ***  
2014-12-30
10:32:00
23.--.46.130

am

사무장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정말 힘들고 외로운 싸움 시작하신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자기이익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나중에 후회하게 될거예요.
꼭 힘내세요. 모두 잘 되실거예요

9 ***  
2014-12-30
10:36:00
76.--.245.151

am

지난번에도 댓글 썼습니다 만, 원글님 계속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박 사무장님, 때때로 견디기 힘든 순간들 있으시겠지만 뒤에서 응원하는 사
꼭 !!!! 인간승리로 기쁜소식 듣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장님을 도울 길이 생긴다면 동참하겠습니다

12 ***  
2014-12-30
10:58:00
68.--.38.56

am

박창진 사무장님
지금은 외롭게 느껴지겠지만 주저앉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가는길이 꼭
사무장님 상상보다 더 많은사람들이 뒤에서 옆에서 같이 그 길을 따라가며

13 ***  
2014-12-30
11:09:00
24.--.118.194

am

박창진 사무장님 거대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시려는 용기
다. 부하직원을 보호하려고 하셨던 그 선의와 행동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겪으시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진실과 정의 편에 서 계시는 사무장님을
시고 힘 내세요. 함께 합니다. 존경합니다. 보스턴 미시.



참여연대



함께 만드는 꿈
1994-2014

공동대표 김균 · 이석태 · 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14 ***
2014-12-30 am
11:11:00
98.--.107.46

응원하고 후원하고 싶어요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보고싶어요 원
씨들이 함께합니다 화이팅 정말미국에 좋은 아가씨 있으면 결혼해사
요~~~~~

15 ***
2014-12-30 am
11:20:00
98.--.0.217

We pray for you...